

섬 어르신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 높인다

전남도, 공모 선정 1억2천만원 확보

고흥·완도·진도·신안서 AI기반 돌봄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에게 AI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됐다. 이 중 전남도는 국비 1억2천600만원을 확보해 강원도와 함께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 받았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돌봄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제공기관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건강·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응급의료 취약지, 인구 감소,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고흥·완도·진도·신안 등 4개 군 섬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가정 내 일상돌봄을 중심으로 건강 관리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형 돌봄

모델이다.

주요 서비스는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24시간 생활돌봄 ▲비대면 심리상담 ▲케어푸드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가정에 설치된 AI 돌봄로봇은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며 말벗이 되고 복약 알림과 안부 확인 등 일상 돌봄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화 내용, 활동량 변화 등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전달되고 필요 시 전문가와 비대면 심리 상담을 연계

한다. 이를 통해 고립되기 쉬운 섬지역 어르신의 일상에 작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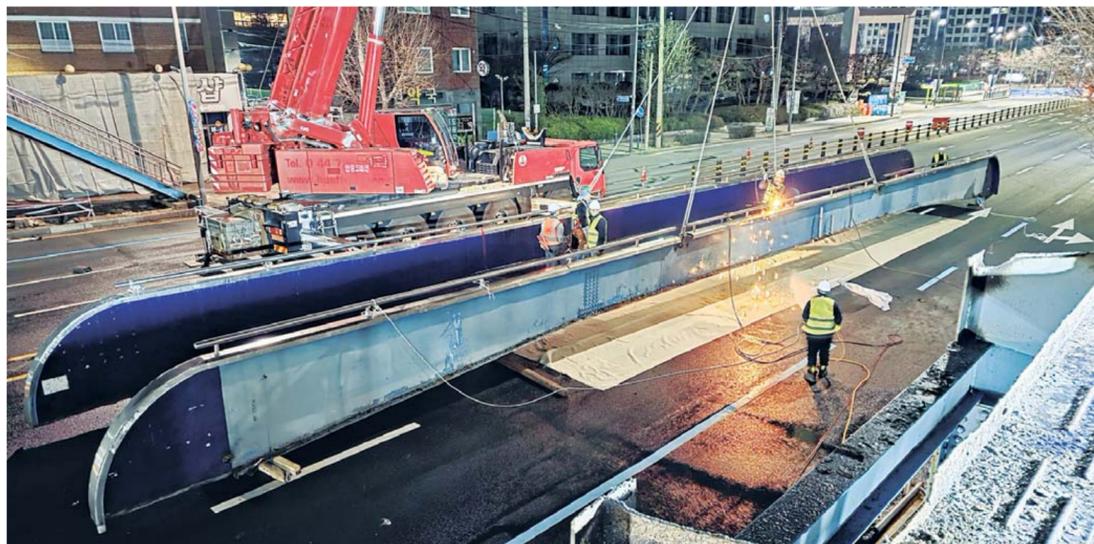
케어푸드 제공은 전남바이오토크원과 협력해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고령자 맞춤형 키트로 제공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돌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을 '섬관리자'로 지정해 돌봄서비스 안내와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사업에도 전국 유일 선정돼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돌봄 모델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섬지역 주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 완화와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섬 주민을 위해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마련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발굴해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조선대 앞 '도내기 육교' 철거 지난 14일 새벽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사거리 인근 도내기 육교가 상판이 절단돼 철거되고 있다. 1993년 준공된 도내기 육교는 폭 3.5m, 길이 27.4m 규모로 옛 도내기시장에서 명칭을 따왔다. 도내기시장은 1965년부터 서석동 일대에서 운영되다 사라진 전통시장으로 인근에 있던 우물인 '도내기샘'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애리 기자

장흥물축제, 전남 첫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콘텐츠 개발

한국 대표 세계적 관광상품 육성

전남도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글로벌·예비 글로벌 축제 지정 공모에서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 축제가 글로벌 축제 단계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객 3천만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관광 콘텐츠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다.

공모에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 45개 가운데 27개 축제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서면평가와 발

표평가를 거쳐 글로벌 축제 3개와 예비 글로벌 축제 4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글로벌 축제는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다. 예비 글로벌 축제는 정남진장흥물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다.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연 2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 콘텐츠 개발과 관광상품 연계, 국제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전남 축제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축제 단계인 '예비 글로벌 축제'에 진입한 것은 전남 축제의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정남진장흥물축제는 전남도 지역 축제 글로벌화 사업에서 3년 연속(2024-2026년) 선정돼 국제 축제 교류와 해외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정남진장흥물 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여름 축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주 관광체육국장은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것은 전남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글로벌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남 축제를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산림청 '산림 R&D 메카' 입증

산림청 4개 과제 국비 104억 확보

전남도산림연구소는 15일 "산림청의 '2026년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R&D)' 공모에서 총 4개 연구과제가 선정돼 국비 10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산림연구소는 전국 지자체 산림연구기관 중 최다 과제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산림 R&D 메카'임을 입증했다.

선정된 과제는 디지털 기반 산림자원 원물 양산화, 산림자원 기능성 검증 강화 분야로 각 2개씩이다. 향후 5년간 산림자원의 원물 생산부터 소재 개발, 산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원스톱 가치사슬(Value-Chain)' 구축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연구실 안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양산 체계를 구축해 입업 현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수종별 표준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입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수요 기업과의 계약재배를 연계함으로써 '연구-생산-산업화'가 선순환하는 실질적 수익 창출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전남의 대표 자산인 황칠나무, 동백나무, 전호 등 난대성 산림자원의 기능성 소재화를 본격화하는 한편, 글로벌 인증 확보를 통한 공격적 해외 시장 진출로 전남의 숲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산림바이오'의 글로벌 전초기지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소장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남의 숲이 글로벌 산림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우리쌀·밀 가공식품 활용 교육생 모집

광주농기센터, 20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5일 "2026년 우리쌀·밀 가공식품 활용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16-20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4월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1층 생활문화교육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우리쌀에 대한 이론 강의, 우리쌀·밀을 활용한 디저트 및 가공 레시피 실습으로 구성됐다.

회차별 실습 메뉴는 ▲1-3기 레몬글레이즈 마들렌, 퍼지 브라우니 ▲4-6기 생크림 카스테라, 케이크팝 ▲7-9기 블루베리 다푸아즈, 크림치즈 인절미 등 다양한 디저트 메뉴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

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6-20일 광주시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가수별 선착순 20명씩 총 180명을 모집한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성평등 지원사업 수행단체 공모

광주시는 15일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 등을 위한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오는 4월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등 3개 분야다.

서류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4월2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